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11.(수) 09:30 < 10.11.(수) 석간 > 배포 2023. 10. 10.(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 양국 장관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선언 공동선언문에 서명
- 한국산 자동차/부품·친환경차 무관세 수출, 중남미 지역 K-콘텐츠 확산 여건 마련
- 석유, 광물자원이 풍부한 에콰도르와 자원수급 다변화 및 공급망 협력 확대 추진
- 타결 선언식에 이어 양국 경제인 교류 행사로 「한-에콰도르 비즈니스 토론회(포럼)」 개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0,11.(수)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SEC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한-에콰도르 SEC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한-에콰도르 SECA에 대한 가서명도 양측 수석대표**간에 이루어졌다.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조 FTA

** (한)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에) 에드윈 바스케스 생산통상투자수산부 통상차관

양측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재개한 이후 그간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이번에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하여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로서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여 환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규모는 작년 9.8억 달러에 달했다.

* 한-에콰도르 무역규모('22년, 백만 달러) : 981(韓 수출 771, 수입 210)

또한,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매장량),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에 이번 한-에콰도르 SECA에 공급망 위기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 ①주요 에너지·광물자원의 수급위기시 공조체계 마련 및 협력위원회를 통한 정보교환·공동대응, ②산림과 보건산업 분야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등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하였다.

* 시장개방 수준 : (품목수 기준) 한 96.4%, 에 92.8%, (수입액 기준) 한 98.8%, 에 97.6%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발효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하였고, 현지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 및 중남미 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열었다.

* (중) 에콰도르와 FTA('23.5월 정식서명)을 통해 향후 20년내 자동차 관세 철폐 예정
(일) 에콰도르와 FTA 없음

또한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여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확대 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 지역으로 확산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공공사업 참여 및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유명상표 보호 및 권리침해시 구제장치 마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규정도 반영하였다.

한편, 에콰도르의 관심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FTA(한-페루, 콜롬비아, 중미 FTA 등)의 범위 내에서 개방한 가운데, 에콰도르산 새우의 경우 국내 업계 민감성을 감안하여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 : Tariff Rate Quotas)으로 개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에콰도르 SEC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에콰도르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100여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축사를 통해 한-에콰도르 SECA 타결을 축하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근오 (044-203-5830)
		담당자	사무관	모덕춘 (044-203-5787)
	통상협력국 중남미대양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630)
		담당자	사무관	김윤주 (044-203-563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JOINT STATEMENT
ON THE CONCULSION OF NEGOTIATIONS
FOR THE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ECUADOR

Seoul
11 October 2023

INSPIRED by the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Ecuador and the growing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in 1962;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economic partnership and further liberalize bilateral trade between the two economies in a mutually beneficial manner by creating mor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for the people and businesses of the two countries;

ACKNOWLEDGING that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is currently undergoing rapid changes amid the unprecedented challenges po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at the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Ecuador (hereinafter "Korea-Ecuador SECA") can contribute to swift recovery for the robust and resilient growth of the economies of the two countr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Korea-Ecuador SECA, which covers Trade in Goods, Rules of Origin,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Economic Cooperation, Government Procurement, Cross Border Trade in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others;

We, Bang, Moon Kyu,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Daniel Legarda, Minister of Production, Foreign Trade, Investments and Fisheries of the Republic of Ecuador have agreed that both sides:

1. have concluded the negotiations for the Korea-Ecuador SECA;
2. have initialized the English text of the Korea-Ecuador SECA;
3. will commit to complete all necessary procedures for the signing of the Korea-Ecuador SECA as early as possible.

For the record, we sign this joint statement to officially confirm and announce what has been agreed above regarding the Korea-Ecuador SEC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Bang, Moon Kyu	Daniel Legarda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er of Production, Foreign Trade, Investments and Fisheries

참고 2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대한민국과 에콰도르 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의 타결에 관한 공동선언문

서울
2023년 10월 11일

1962년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이래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 공화국 간의 우정과 협력, 그리고 양국 경제관계의 성장에 고무되고,

양국의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혜택 창출을 통해 호혜적인 방식으로 양국 간 경제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역을 더욱 자유화하기를 갈망하면서,

COVID-19 팬데믹으로 야기 된 전례 없는 도전을 맞이한 상황에서 국제 무역 환경이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대한민국과 에콰도르 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한-에콰도르 SECA')이 양국 경제의 굳건하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한 신속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상품무역, 원산지 규칙,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경제협력, 정부조달,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챕터 등을 다루는 한-에콰도르 SECA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 방문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토우마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양국은 :

1.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타결하였다.
2. 한-에콰도르 SECA 영문본에 가서명하였다.
3. 가능한 이른 시기에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기록으로서, 우리는 한-에콰도르 SECA와 관련해서 합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표하기 위한 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콰도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 문 규	다니엘 레가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

참고 3 한-에콰도르 교역 및 투자 현황

* **한국의 63위 수출대상국, 71위 수입대상국** ('23.7월 기준)
(중남미 국가 중 수출 7위, 수입 9위)

□ 교역 현황

○ 교역 규모는 7억~10억 달러 수준,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0% 감소, **'21년 이후 10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 한국은 매년 3~5억 달러 흑자

(백만불, 누계, 전년대비 %)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7
수출	금액	641	434	609	782	479	378	762	771	319
	증가율	(△21.0)	(△32.3)	(40.2)	(28.4)	(△38.7)	(△21.2)	(101.8)	(1.2)	(△42.6)
수입	금액	246	94	128	117	250	91	207	210	173
	증가율	(△28.3)	(△61.6)	(35.6)	(△8.5)	(114.3)	(△63.9)	(128.9)	(1.5)	(△179.8)
교역		887	528	737	899	729	469	969	981	492
증가율		(△23.1)	(△40.5)	(39.6)	(22.0)	(△18.9)	(△38.6)	(106.6)	(1.2)	(△20.2)
무역수지		395	340	481	665	229	287	555	561	146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5대 상위품목 현황('23.7월 기준)

○ **수출** 품목은 **경유,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열연강판 등이 중심, **수입** 품목은 **원유(약 70%), 새우**, 바나나, 어류 등 1차 산업 제품 위주

(단위: 백만불,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경유	83	26.0	원유	125	72.3
2	자동차부품	26	8.2	새우	20	11.6
3	합성수지	25	7.8	동괴및스크랩	15	8.7
4	승용차	24	7.5	과실류	8	4.6
5	열연강판	22	6.9	갈치	3	1.7
	계	180	56.4	계	171	98.9

* 출처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투자 현황

○ 주요 진출 기업은 **삼성전자(가전·통신), LG전자(가전), 한솔EME(토목)**이며, 가전 기업은 에콰도르 현지에서 TV 등 일부 제품 OEM 생산 중

(신고금액 기준, 단위: 백만불)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3.1Q	누계('62~)
한국→에콰도르	4	0	6	0	0.1	0	0	0	133
에콰도르→한국	0.05	0	0	0	0.1	0.085	0.09	0	0.6

* 출처: 수출입은행(한국→에콰도르), 산업통상자원부(에콰도르→한국)

참고 4 「한-에콰도르 SECA」 협상 추진 현황

1. 국내 절차

□ '15. 4. 1일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 '15 .4. 7일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 '15. 4.29일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국회보고**

2. 협상 현황

□ '16년 **1~5차 공식협상* 개최**

* 1차('16.1, 키토), 2차('16.3, 서울), 3차('16.8, 키토), 4차('16.10, 서울), 5차('16.11, 키토)

– 양측 입장차 등으로 5차 협상 이후 중단

□ '21. 7월 에콰도르측이 **협상재개 제안**

□ '22. 3월 한-에콰도르 통상장관회의, **SECA 협상 재개 공동선언**

□ '22. 7월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공식협상(서울)

□ '22. 10월 「한-에콰도르 SECA」 제7차 공식협상(화상)

□ '22. 11월 「한-에콰도르 SECA」 제8차 공식협상(키토)

□ '23.1~3월 「한-에콰도르 SECA」 회기간 협상(화상)

□ '23. 4월 「한-에콰도르 SECA」 제9차 공식협상(서울)

□ '23. 6월 한-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서울)

□ '23. 8월 한-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화상)

□ '23.10.11 **「한-에콰도르 SECA」협상 최종 타결 선언**

참고 5 「한-에콰도르 SECA」 주요 내용

1. 상품

◈ **자동차(관세율 40%) 등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의약품(5%)·농식품(15~30%) 등 유망품목의 수출 확대 및 공급망 협력 기반 마련**

◇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측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

* 최종 시장개방률: (우리) 품목수 96.4%, 수입액 98.8%, (에측) 품목수 92.8%, 수입액 97.6%

1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 승용차·화물차**(관세율 35-40%, 15년철폐), **가전제품**(20%, 5년) 등 **수출액이 큰 우리 주력품목*의 관세철폐**를 확보

* 對에콰도르 자동차 관련 수출액(자동차 · 부품) : 124.5백만불, 전체 對에 수출의 20.1% 차지

○ 에콰도르의 친환경 차량 지원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35%, 5년)*는 **단기 관세철폐를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선점 효과 기대**

* 에콰도르 내 하이브리드차 총판매량: ('20년) 1,148대 → ('21년) 4,280대 → ('22년) 6,900대
- 역내 우리 기업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20년) 533대 → ('21년) 2,718대 → ('22년) 3,075대

2 **(유망품목 진흥) 남미 지역**(페루·콜롬비아 등) **유망품목** 개방으로 **對중남미 수출동력 강화** 및 **교역 다변화 기대**

○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받는 **화장품**(20%, 10년)* **및 라면**(30%, 10년), **김**(5%, 5년), **건강음료**(20%, 7년) 등 **소비재·가공식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배**(15%, 즉시)등 신선 과실의 **수출 기반을 조성**

* 對 페루·콜롬비아 화장품 수출액: ('11년) 373천불 → ('22년) 6,727천불

* 한-페루 FTA 발효 후 5년간 식품류 수출은 평균 79.6 % 증가, 한-콜롬비아 FTA 발효 후 5년간 가공식품 수출은 발효 이전 대비 평균 25.1% 증가(FTA 이행평가보고서)

○ 에콰도르의 개발 및 복지 정책으로 수요가 높아진 **건설중장비**(5%, 10년), **의약품**(5%, 즉시), **의료기기**(5%, 5년) 등의 개방으로 교역 품목의 다각화

3 **(에너지 및 공급망 협력)** 원유 등 **천연자원의 관세를 철폐**하여 국내 **수급선을 다각화**하고 이를 활용한 **우리측 수출 기회도 모색**

○ 우리나라의 **對에 최대 수입품인 원유**(3%, 10년)와, **對에 최대 수출품인 정제유**(에측 관세율 10%, 5년)의 상호개방으로 **수출입 동시 활성화** 기대

○ **사료용 옥수수**(328%, 10년)**·유장**(49.5%, 12년) **등의 관세를 철폐**하여 **식량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4 **(민감품목 보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중남미 인접국과 체결한 **기체결 FTA**(한-페루, 콜롬비아, 중미 FTA 등) **범위 내**에서 **양허**

○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전통적인 민감 품목**을 비롯해 갈치, 고등어, 문어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로 보호

○ **냉동새우** 등 에콰도르측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고정된 물량만큼만 제한적으로 개방**(TRQ)*하는 등 **다양한 보호 수단을 확보**

* 초기물량 10,000톤으로 시작하여 5년간 증량, 6년차 이후 연 15,000톤 쿼터 할당

<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결과 >

	분류	주요 품목
상대측 개방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	주요 자동차(15년), 중소형 하이브리드차(5년), 자동차부품(범퍼, 쇼크업소버, 보닛등)(즉시), TV(5년), 세탁기(10년)
	유망 품목진흥	의약품(즉시철폐), 의료기기(5년), 화장품(10년), 건설중장비(10년), 배(즉시철폐), 김(5년), 건강음료(7년), 라면(10년), 커피조제품(10년)
우리측 개방	에너지 및 공급망 협력	원유(10년), 사료용옥수수(12년), 사료용유장(12년), 배합사료(즉시철폐)
	민감품목 보호	쌀·고추·마늘·양파(양허제외), 갈치·고등어(양허제외), 냉동새우(TRQ), 유제품(양허제외)

2. 경제협력

◈ 공급망·청정경제 등 포함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근거 마련

1 에너지·광물, 산림, 보건 등 **유망분야별 공급망 협력 근거 최초 마련**

○ 에콰도르는 **석유**(중남미 3위 매장량) 및 **광물**(금·은·구리 등)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에너지 및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최적의 파트너**

* 공식적인 매장량은 未공개 상태이나, 금, 은, 동 전체 매장량은 약 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 [KOTRA, 2021], 광물이 지표면과 낮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어 채굴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

○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의 사례**로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메커니즘***을 규정하여 추후 양자 공급망 협력의 기반 마련

* ①주요 에너지·광물자원의 수급위기시 공조체계 마련 및 협력위 통한 정보교환·공동대응 ②산림 밸류체인 관련제품의 가공·공급·무역 ③보건산업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등

2 에콰도르 에너지부는 녹색경제 장기계획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업 육성에 관심도가 높은바 해당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청정경제 발전 활성화 기대**

○ 태양광발전·풍력·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지역을 구성**하기 위한 투자 지원 및 합동프로그램 개발

○ 중소기업 관련 민간·공공기관의 **환경경영*, 순환경제**** 등 협력 증진

*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 감소 및 청정생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리

**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모델

3 **체계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여 **경제협력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연 1회 개최하는 **협력위원회** 및 필요한 분야의 추가적인 **이행장치*** **마련**을 통한 **조직적인 이행 능력 확보**

* (기업환경개선) 감독기관 역할의 접촉선 지정, (중소기업) 민·관·학 협의체 구성 등

2. 서비스

1 서비스 무역

□ **온라인게임·시청각(영화, 음악 등)·건설·유통 서비스** 등 **우리측 핵심 관심 분야 시장 개방**으로 對에 진출 우리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력 확보**

* GATS 대비 추가 개방 분야: 온라인게임, 시청각, 건설(일반건설, 토목공사, 설치·조립), 유통(위탁판매, 소매, 프랜차이즈) / GATS에서는 건설(광산부지 사전 작업), 유통(도매)만 개방

○ **시청각 분야 개방**으로 한국 **드라마·영화 등 K-컨텐츠**의 **對에 공급 루트가 확대**되어 에콰도르 內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에콰도르에는 11만명 이상의 한류 동호회원 활동중('19, 한국국제교류재단)

○ **온라인게임** 서비스도 우리나라에 **최초 개방**하여 경쟁력을 갖춘 우리 게임 기업의 **안정적 對에 진출 기반 마련**

○ 에측이 **항만·공항·도시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건설 분야 개방**으로 **우리 건설기업의 對에 진출 기반** 마련

* 에콰도르는 3대 도시(키토, 과야킬, 쿠엔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투자액 10억불↑) 진행중, 최근 대규모 주택 건설 계획 발표('25년까지 주택 20만개 이상 건설 목표, 투자액 34억불)

* "에측의 잦은 법 제·개정 및 짧은 유예기간 등이 기업 활동에 애로"(현지 진출 기업)

2 금융

□ 한-중미FTA('21.3.1.) 이후 중미권 국가와 체결된 FTA로서, **중미 금융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

* 에콰도르는 미 달러화를 사용하여, 환위험 및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른 중미 국가 대비 낮다는 평가

○ 한미 FTA 수준의 높은 개방도를 확보함으로써, 특히 **신금융서비스가 진출하기 용이한 기반***을 확보

* 코로나 이후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로 지급·결제 등 연관산업 진출을 모색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

3 통신

□ 양국간 **통신협정문을 별도로 수립**함으로써 양국의 공중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기반 마련**

○ 양국의 공중통신사업자가 당사국의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재판매, 상호접속, 망요소세분화 등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의무 부과**를 통해 **양국간 통신 시장내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

4 디지털

□ DEPA* 수준의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영화·드라마·음악** 등 **K-컨텐츠** 및 **온라인게임**의 **對에 시장진출 확대** 지원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회원국) : 한국,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 **한국 디지털제품**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및 **영구적 무관세**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 마련**

○ **양국간 데이터 이전 허용***으로, 우리 기업이 전자상거래 **사업 중 수집한 정보**를 **한국 서버로 이전****하여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 전략 수립** 가능

* 일정 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기업에게만 국경간 데이터 이전 허용(에측 개인정보보호법, '21.5)
** (기존)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한국 서버로 이전 불가 → (개선) 데이터 이전 가능

○ 아울러,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에콰도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화장품·식품** 등 한국 제품 **판매 촉진을 제도적으로 지원****

* "'20년 펜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 400% 성장" (에콰도르 정보통신부)
** 전자적 통관서류 허용, 전자송장 상호운용성 제고, 신속 통관절차 보장, 전자결제 촉진 등

3. 통상 규범

◈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 및 애로해소, 권리보호를 위한 규범 마련

1 정부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에콰도르의 **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하여 **우리 기업 진출 기반 확대**

* 가입국간 정부 조달 시장의 개방(비차별원칙), 공정성, 투명성 등 경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WTO 복수국간 협정(현재 48개국 가입)

** 에콰도르 조달 시장 규모 약 77억 달러('22년, 에콰도르 조달청)

○ 에콰도르 정부는 **에너지 다변화**, 도로 등 **공공인프라 재건**, 스마트 시티 등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 중으로

-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이들 분야**에서 **에콰도르 중앙·지방정부 및 공기업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에콰도르 **공공 프로젝트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2031 Electricity Master Plan,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2022-2025 Digital Transformation Agenda 등

** 우리 기업은 그간 건설(도로, 상수도 등), 에너지(변전소, 정유소) 분야 중심으로 에측 공공시장에 진출, 현재도 우리 기업이 동 분야 입찰 준비 중

○ 에콰도르 진출기업의 **현지 거주요건 완화 노력 조항**을 **양국 FTA 최초 포함***하여 **기업 애로 해소** 및 **진출 여건 개선 기대**

* 에콰도르-EU FTA('23년 발효) 등 그간 에측이 기 체결한 FTA에 미포함

○ 이외에도, 에콰도르 정부조달 시장 진출시 **차별 금지**, 낙찰 조건으로 **국산품 사용·기술이전·현지투자 요건 부과 금지** 등을 명시하여 에콰도르의 자국기업·자국산 우선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 진출 여건 크게 개선**

2 원산지

□ **(원산지 규범)**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마련**

○ **(전기·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해외 원자재 조달비율, 글로벌 소싱 증가 추세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 마련

-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중 **업계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

* 세번변경기준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최종 제품을 생산한 경우, 최종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부가가치기준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특히, 우리의 **對에콰도르 수출 1위 품목인 정제유***는 우리 기업이 선호하는 **공정기준****까지 추가**하여 수출 증대 기반 확대

* 최근 3년('20-22)간 對에콰도르 수출 중 정제유 비중 44.86%

** 상압증류, 강압증유, 촉매 하이드로프로세싱, 코킹 등

○ **(수산식품, 섬유제품)** 일부 주력 수출 품목은 **업계가 요구하는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마련**

- 우리 수산업계 **주력 수출 품목인 김 조제품**(조미김, 김부각 등) 생산시 **역내산 김 사용 요건을 부과**하여 **국내 수산업 활성화** 도모

* 김은 '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22년 김 단일 품목으로 수출 1억불 달성 기업 탄생

- 섬유 중 우리 **주력 수출 품목**(합성 섬유 직물 등) **생산시 역내산 화섬사(yarn)* 사용 요건을 부과**하여 **장기적 국내 섬유 생태계** 경쟁력** 확보

* 국내 화섬사 분야 관련 기업은 2,695개사로 18,306명이 종사 중, '21년 생산액은 6조원 이상이며 관련 수출액은 연간 10억불 수준

** "원사 → 원단 → 원단가공(염색 등)"의 가공 과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규정하여 국내 화섬 산업의 연계 공조

□ **(원산지절차.통관)** 원산지절차 **간소화**, 양국 간 통관절차.무역**관행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수출 제고 기반 마련**

○ 원산지증명 절차를 한-EU FTA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非원산지 상품의 FTA 특혜 차단**을 위한 **다양한 원산지검증 절차 확보**

* 인증수출자의 경우 별도의 증명 절차 없이 수출 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장 기재(날인)

○ 양국 간 **원산지 협력조항을 별도로 도입**하여 **인증수출자 정보 교환**,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 등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등 대부분 분야의 **사전심사 서비스 제공**하고, **신속한 결과회신(90일)**에 합의하여 **예측 가능한 FTA 활용 지원**

○ **48시간內 화물반출**, **365일 24시간 긴급화물 통관 지원** 등 통관 및 무역원활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

3 무역 구제

□ WTO를 상회하는 규범*을 도입하여 무역구제 조치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방지**

*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시 보상체계 마련, 1년 후 점진적 자유화, 잠정조치(200일)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가격약속(undertakings), 필수 정보 공개, 공공이익 고려 등

○ 무역구제 이슈 관련 양국 간 대화채널로서 **무역구제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쟁점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4 경쟁

□ 에콰도르내 **공정 경쟁 촉진**, 경쟁법관련 **제재시 구제 강화**로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여건 마련**

* 에콰도르 진출 기업(코트라) : 삼성전자, LG전자, 건화엔지니어링

○ 에콰도르 내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공기업·지정독점 기업에 경쟁법 적용** 등을 명시하여,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에콰도르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독과점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

* 에콰도르는 경쟁당국이 설립된지 10년이 안된 국가로 공정한 경쟁 관련 인식이 부족

○ 우리 진출 기업이 에콰도르 경쟁법 제재 대상이 될 경우 재판을 통한 **사법적 구제** 뿐 아니라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로는 최초***로 **행정적 구제도 가능하게** 하여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도 강화**

*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등 여타 중남미 국가와의 경쟁챕터에는 구제방안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한-중미 FTA에서는 사법적 구제방안만 명시함

5 지식 재산권

□ 에콰도르 內 **K-컨텐츠 및 제품이 소비 트렌드로 정착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에콰도르 국영방송에서 韓애니메이션, 예능 및 드라마(뽀로로, 타요, 윤식당 등) 방영, 한국 화장품의 對에콰도르 수출액 '22년 전년대비 308% 증가 등

□ 이에 미등록상표도 유명상표로 보호 가능, 非동일·非유사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도 유명상표 보호 등 **높은 수준의 유명상표 보호 의무를 규정**

○ 또한, **한류 컨텐츠 지재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장치* 마련**

*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침해시 집행규범(민·형사 절차, 통관 보류 등)

6 TBT

□ **기술규제** 등과 관련된 **수출기업 애로 완화** 방안을 마련함

○ **기술규정 개정** 시 **60일간 의견수렴** 및 **채택 후 6개월 이상 유예기간** 적용, **기술규정 영문본 제공** 등을 규정하여 수출기업의 원활한 기술규제 대응 기반을 마련함

- 특히, **기술규정 개정시 유예기간 적용** 의무화 규정을 **우리 FTA 최초로 명시**하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대응 불확실성 대폭 저감 기대**

○ TBT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기술규제 관련 현안 발생 시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 구축